호주와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

김태훈·김현옥

1. 호주 농산물 수출

1.1. 호주 농업 개황

뉴질랜드의 이웃 나라인 호주는 한반도의 35배 크기로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크기와 유사하다. 호주 대륙의 중앙은 대부분 사막지대이며 인구 분포 또한 동부 해안가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다. 기후도 열대부터 한대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분포를 갖고 있다. 동부 해안가를 제외하곤 연 평균 강우량이 500-600mm에 그치는 등 지난 10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어왔으나 기상이변으로 2011년과 2012년 초에 연이어서 주요 작물지대인 빅토리아 주와 퀸즐랜드 주에 큰 홍수가 발생하여 작물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 기후 상 뉴질랜드와 차이가 있지만 초목지를 기반으로 한 목축업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해 온 공통점도 있다.

호주의 원예 산업 규모는 경제적인 가치로 볼 때 목축 (비육), 곡물에 이어 호주 농산업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이다. 주요 원예 산업 분야는 과수, 채소, 견과, 화훼, 잔디와 모종 산업이며 대부분 계절 생산을 한다. 개별 원예 농가의 규모는 소규모 가족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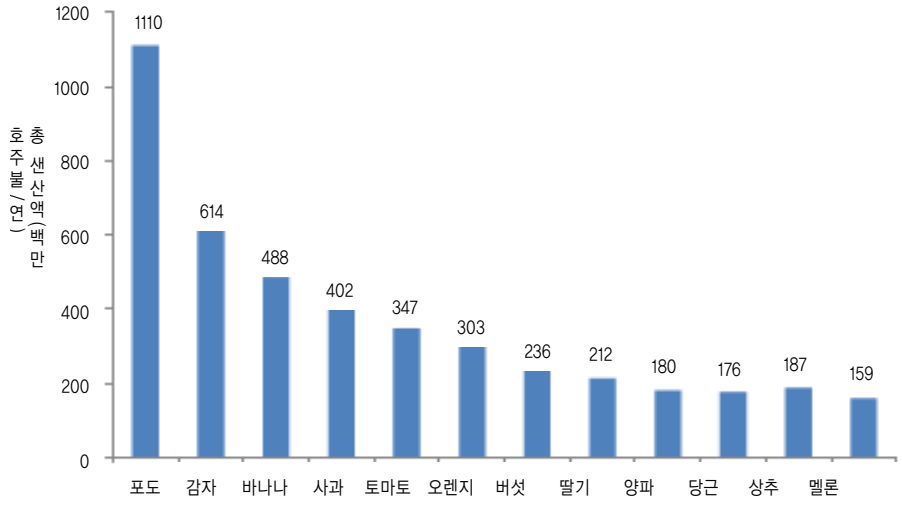
* 본 내용은 뉴질랜드 농업연구소 소장 김태훈 박사와 김현옥 박사가 작성하였으며 호주/뉴질랜드 원예 수출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info@nov08.com; +64-9-478-6705).

규모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중·대형 규모의 기업농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호주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원예 재배면적은 250,000ha이며 과수, 견과류 및 채소 분야 등을 포함 내수 및 수출 분야 원예산업의 고용 인구는 약 63,250명이다. 별도로 채소와 과일 등 원예 가공 분야에는 9,750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계절 고용 노동인구가 약 175,000명이다. 2009/10년도 내수와 수출을 합한 원예 분야 총생산은 약 84억 호주달러이며 이 중 과수와 견과류 생산이 약 41억 호주달러, 채소 약 30억 호주달러, 화훼 종묘 및 잔디가 약 13억 호주달러이다.

대표적인 호주 원예 산업의 주요 품목별 연간 총생산액 (2009/10년도) 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포도가 1,110백만 호주달러로 가장 큰 생산액을 보여주고 있으며, 뒤를 이어 바나나 488백만 호주달러, 사과 402백만 호주달러, 토마토 347백만 호주달러, 오렌지 303백만 호주달러, 버섯 236백만 호주달러, 딸기 212백만 호주달러, 양파 180백만 호주달러, 당근 176백만 호주달러, 상추 187백만 호주달러, 멜론 159백만 호주달러이다. 참고로 다음의 <그림 1>에서 상추와 멜론의 생산액은 2008/09년 통계치이다.

그림 1 호주 주요 원예 산물 총 연간 생산액 비교



자료: 호주 원예협회, 2009.

1.2. 주요 농산물 수출 및 수입 현황

호주는 대표적인 농업 수출국이다. 호주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별 수출 현황과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 현황이 <표 1>과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호주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은 육류와 곡물이다. 곡물의 경우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 3 참조> 이들 품목들은 호주 전체 생산의 약 60% 이상을 수출한다. 반면 원예의 경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뉴질랜드는 원예 총생산액 63억 NZ달러 중 와인을 포함하여 원예수출액이 33억 NZ달러로 수출이 비중이 큰 반면에 호주의 경우 2010/11년 원예 산물 총생산 84억 호주달러 중 수출액은 전체 약 13% 정도인 약 11억 호주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특이 사항은 호주는 대표적인 농업 수출국으로서 육류 및 곡물을 포함하여 농업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무역수지 흑자 구조이지만 원예에 한해서만은 수입이 수출을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표 2>에서 보듯이 호주의 과수 및 채소 수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1억 호주달러 전 후로 큰 변화가 없으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11년에는 원예 분야 수출 대비 수입이 697백만 호주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호주 농산물 산물 총 수출액과 주요 품목별 수출액 현황

단위: 호주달러 백만$

구 분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신선 원예산물 (채소/과일/견과)	617	631	598	571	716
가공과일 및 가공채소	511	555	574	568	575
와인	2,721	2,768	2,894	2,700	2,493
곡류	4,672	4,305	3,329	4,221	6,361
육류	7,029	6,785	7,117	6,571	7,501
낙농제품	2,485	2,569	2,438	2,763	2,679
해산물	689	606	548	440	417
총 수출액	24,053	24,070	23,359	23,439	27,879

자료: 호주 농업부, 호주농업광업자원연구소, ABARE, 2010.

표 2 2000년대 중반이후 호주 원예 수출입 변화

단위: 호주달러 백만$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수입	과일/견과	741	846	928	991	943	1,022
	채소	528	621	731	842	744	786
	합계	1,269	1,467	1,659	1,833	1,687	1,808
수출	과일/견과	829	774	760	898	778	651
	채소	365	410	384	397	372	460
	합계	1,194	1,184	1,144	1,295	1,150	1,111

자료: 호주 농업부, 호주농업광업자원연구소, ABARE, 2011.

표 3 주요 수출 대상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호주달러 백만$

구 분	아시아		유럽 연합		NAFTA	
	2007-2008	2008-2009	2007-2008	2008-2009	2007-2008	2008-2009
신선 원예산물 (채소/과일/견과)	323	471	49	39	61	51
가공과일 및 가공채소	215	207	97	92	35	39
와인	274	314	1,268	1,060	1,000	980
곡류	2,794	5,751	56	253	1	2
육류	3,852	4,220	267	300	1,488	1,818
낙농제품	1,891	1,859	95	46	134	148
해산물	320	314	15	16	68	57
총 수출액	13,341	17,704	2,050	2,395	3,026	3,479

자료: 호주 농업부, 호주농업광업자원연구소, ABARE(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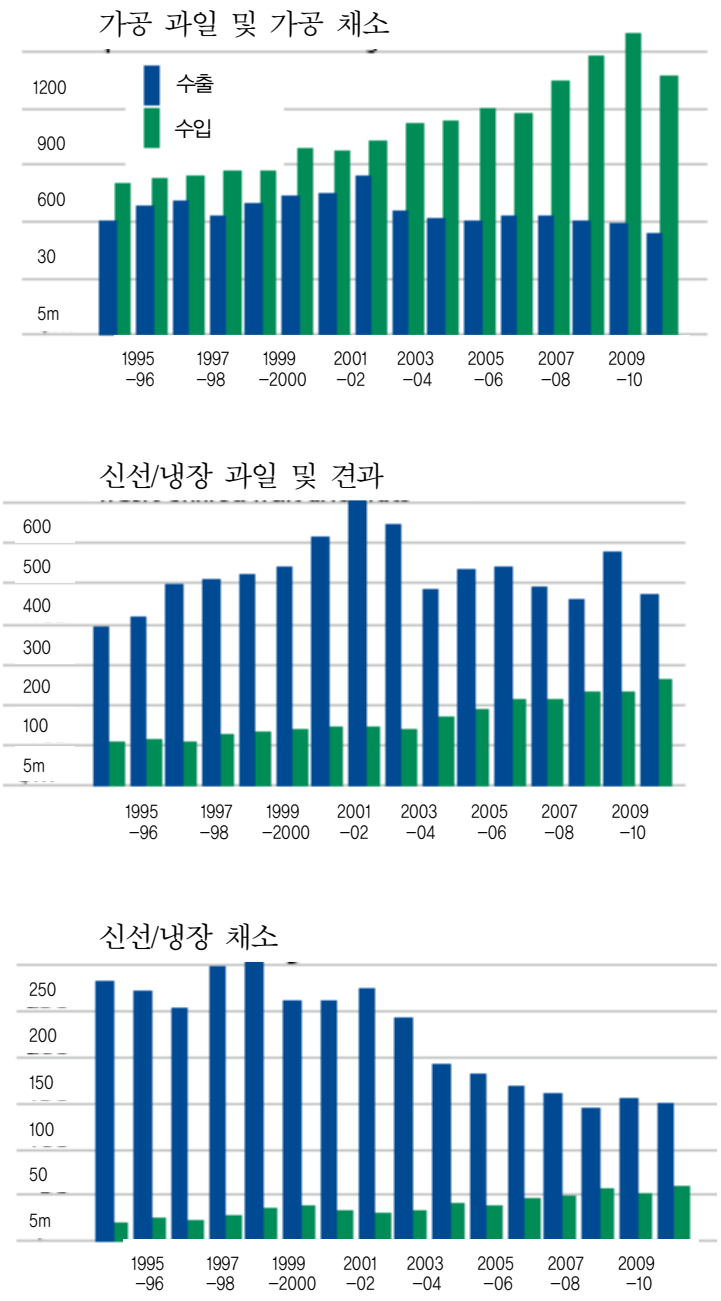
호주의 주요 원예 수출입 품목으로는 오렌지와 감귤류, 포도, 핵과류, 사과 등 신선 및 가공과일, 마카다미아 너트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채소가 해당된다. 이들 농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말레이사아 등이다. 신선과일 수출의 경우 주요 수출 대상국 중 일본,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대만 등에서 검역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호주로의 신선산물 수입의 경우 다수의 품목이 검역 상 수입 금지 품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원예 수입의 경우 호주산 품목의 절기가 지났거나, 생산 차질 등으로 물량 수급이 어려운 경우, 혹은 상대적으로 수요에 대해 공급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수입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호주 원예 수출입 변화 추이를 보면<그림 2>, 전 품목에 걸쳐 수입 부분은 꾸준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선 채소의 수출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계속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가뭄과 국내 수요의 증가가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공 과일 및 가공 채소의 경우 수입과 수출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호주 원예 산업 무역 수지 적자는 2000년대 이후 가공과일 및 가공 채소의 수입 확대에 기인한다.

그림 2 1990년대 중반 이후 호주 원예 수출 및 수입의 변화

단위: 호주달러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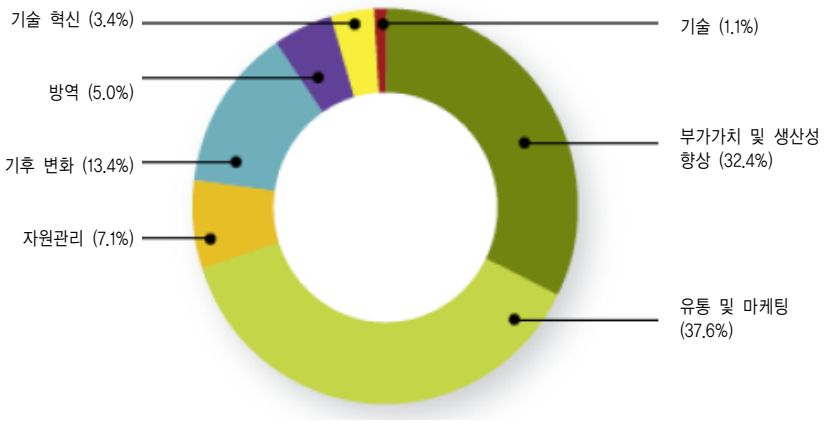
자료: 호주 농업부, 호주농업광업자원연구소, ABARE, 2010.

1.3. 호주 원예 협회 (HAL)와 원예 수출자협회 (AHEA)

호주의 원예 산업 부흥 및 수출에 민간단체의 역할이 크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호주원예협회(Horticulture Australia Limited; HAL)이다. 본 협회는 2001년 설립된 호주의 원예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조직으로 전신인 원예연구개발공사 (Horticul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와 호주원예공사 (Australia Horticultural Corporation)의 업무를 이어가는 비영리 회사이다.

본 협회는 호주 연방 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참여 주체인 원예 품목별 대표 조직의 자조금 및 매칭 펀드에 의한 연방정부 출연금을 포함 연간 호주달러 1억 4백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통해 원예 분야 연구 개발 지원 사업(71.9백만 호주달러), 유통 마케팅 및 홍보 (14.8백만 호주달러) 및 원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정부 시책에 준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원예 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 참여했던 인력들은 원예 분야 및 금융, 경영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대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니에 본부 사무실이 있으며 사장 및 부서 대표를 포함하여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3 호주 원예협회의 사업별 비율



자료: 호주 원예협회

<그림 3>은 호주 원예협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조금 사업의 분야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본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유통 마케팅 관련 부분과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전체 사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원예 수출과 관련해서 협회의 5개부 중 하나인 마케팅부에서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브랜드인 'Australia Fresh'브랜드를 개발 호주 관광청과 협력하여 사과, 배, 마카다미아 너트, 단감, 오렌지, 및 감귤류, 핵과류, 식탁용 포도 및 일부 신선 채소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Australia Fresh 국가 브랜드로 수출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전체 수출 품목 중 사과의 경우60%, 배의 경우 80%, 오렌지의 경우 70% 그리고 핵과류의 경우 27%가 Australia Fresh 상표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브랜드 이용의 장점은 단일 품목 군이 연중 시장에 계속 공급 되지 않더라도 계절별로 대신 다른 품목들이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어 연중 내내 호주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호주 브랜드 상표와 함께 호주 주요 관광지 이미지를 결합하여 호주를 알리는 동시에 원예 산물 수출 증진을 꾀하고 있다.

그림 4 호주 국가 브랜드를 이용한 원예 수출의 예

자료: 호주원예협회.

한편, 호주는 수출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렌지, 사과, 배, 그리고 건포도의 경우 반드시 수출 면허가 있어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출면허관련 법안은 2002년에 호주 원예협회가 원예수출전략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에 제안, 입법화 되어 시행되고 있다.

원예 수출과 관련하여 호주 원예협회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대표적인 원예 수출 품목의 수출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호주 원예수출협회 (The Australian Horticultural Exporters'Association Inc, AHEA)가 존재한다. 본 협회는 신선 과일 및 채소, 견과류, 절화, 관상식물 및 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예 산물의 수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산업별 수출 조직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원예 수출 전체의 약 80%가 본 협회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역할은 원예수출 선적비 중재, 해외 시장 개척 및 홍보 등 이다. 본 회 가입은 원예 수출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한 회원들에게 원예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2. 뉴질랜드 농산물수출

2.1. 뉴질랜드 농업 개황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전반적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지형상 남북으로 길게 분포 되어 있고 (남위 34도에서 남위 47, 1,600km)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중 꾸준한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후, 지리적인 특성을 배경으로 초지 생산을 통한 낙농·목축과 다양한 원예작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적고[1] 주요시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뉴질랜드 농·원예 산업은 전통적으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낙농 수출을 대표하는 폰테라와 키위과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을 들 수 있다. 원예 산업의 경우 현재 키위 과일을 포함한 신선과일류, 가공채소 및 화훼류 등 60여개의 다양한 뉴질랜드 산물들이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출을 포함한 원예 산업 규모 '100억 NZ달러 달성'[2]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2010년 통계로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약 430 만임.
2) 뉴질랜드 원예협회는 2009년 7월, 2020년까지 뉴질랜드 원예 산업 100억NZ달러 달성을 위한 ' Growing a New Future' 라는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현 농림수산식품부 이정삼 서기관의 저서 "뉴질랜드 농업세상 둘러보기" 참조 바람.

2.2. 뉴질랜드 농업 구조 및 수출 현황

뉴질랜드에서 전체 농·원예 산업 생산액은 국민 총 생산 (GDP)의 7.1%에 달하며 뉴질랜드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표 4 참조>

뉴질랜드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14.7백만 ha면적에서 축산, 낙농, 원예 등 63.3천여 개의 농업경영체가 존재한다. 특히, 축산 및 낙농은 전체 농업 면적 중 약 75%에 이르는 초지(약 11백만 ha)에서 저비용 방목형 생산으로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표 4>는 2010년 및 2011년도 뉴질랜드 농산물 산업 수출액을 보여주고 있다. 낙농 산업은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산업이다. 전통적으로 양모와 육류 수출의 비중이 컸으나 최근 뉴질랜드는 키위과일과 사과, 와인 등 원예 수출이 늘고 있다. 2010년도 총 원예 산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원예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원예 산업은 약 100,000ha의 재배면적에 약 6,000여 농가가 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50,000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뉴질랜드 전체 원예 생산액은 뉴질랜드 달러 (NZ$) 63억 불 규모이며 이 중 수출이 3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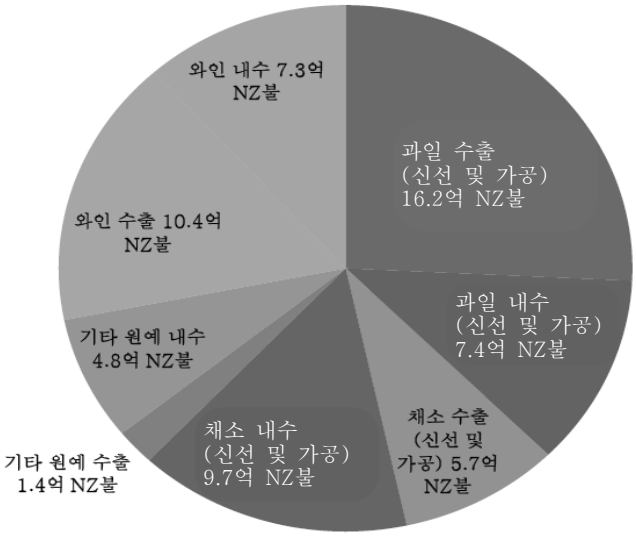
이러한 원예 수출액은 10년 전인 1999년도의 약 17억 불에 비해 거의 2배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6 참조>

표 4 2010년과 2011년 뉴질랜드 대표 농산물 산물 수출액 비교

산물	2010년 수출액 (NZ백만달러)	2011년 수출액 (NZ백만달러)	2010년 총 수출액 대비 (%)
낙농제품	10,562	13,193	30
육류	5,262	5,627	13
양모	739	908	2
총 원예산물 수출액	3,269	3,374	8
키위과일	996	962	–
사과	325	363	–
와인	1,037	1,085	–
기타 신선 및 가공 과일류	226	225	–
채소, 곡류 및 종자 등	685	739	–
총 농산물 수출액	21,887	25,441	58
총 수산물 수출액	1,402	1,561	4
총 임산물 수출액	3,862	4,527	10
총 농산물 및 임수산물 수출액	27,152	31,530	71
뉴질랜드 총 수출액	38,996	44,234	1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2.

그림 5 뉴질랜드 원예 생산 및 수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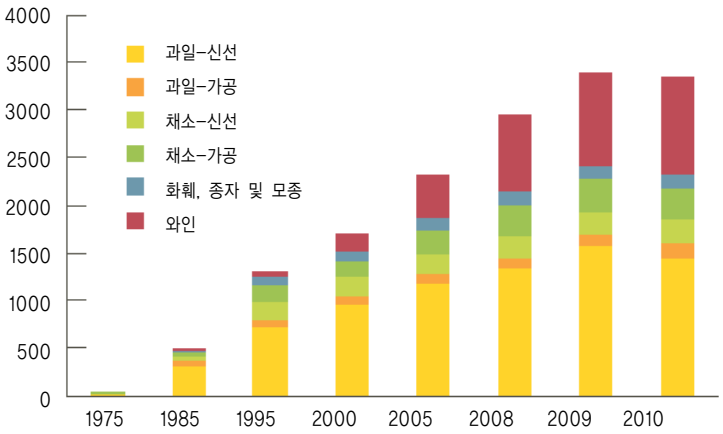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1.

한편, 뉴질랜드 달러로 3억불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는 주요 수출 대상국들은 호주, 일본, 영국, 미국 등이며 한국으로의 원예 수출은 약 1억 NZ달러정도 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지역 국가들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중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북미 등 다양한 국가들로 대상을 늘려가고 있다.

그림 6 1975년 이후 뉴질랜드 원예 수출 증가 비교

단위: 백만 NZ불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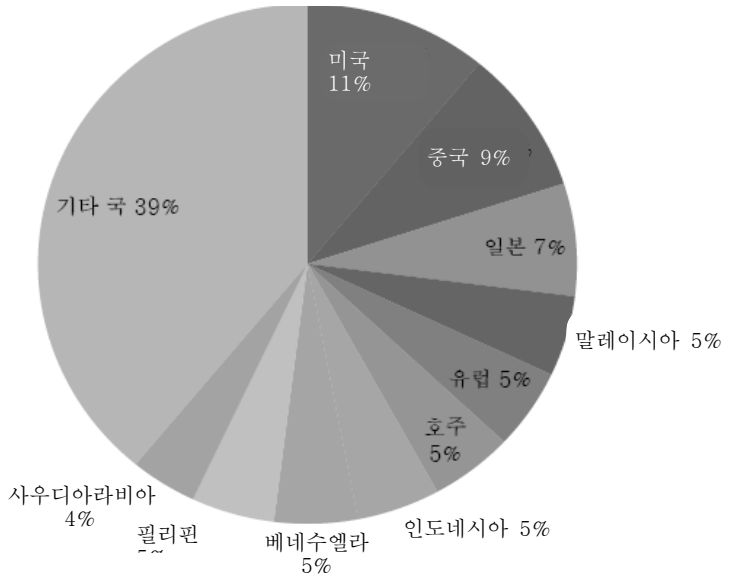
2.3. 주요 품목별 수출 연왕

2.3.1. 낙농 산업

뉴질랜드 주요 농산물 수출 품목 중 가장 대표적이고 비중이 큰 품목은 낙농제품이다. 뉴질랜드는 전체 약 435만여 두의 젖소에서 매년 140억 리터의 원유를 생산 하며, 생산된 원유의 95% 이상을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다. 2011년 낙농수출은 약 130억 NZ달러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30%에 달하며<표 4> 전체 낙농 수출 시장에서 31%로 세계 1위이다. 뉴질랜드 낙농수출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유럽 등의 순이며<그림 7> 2,000년대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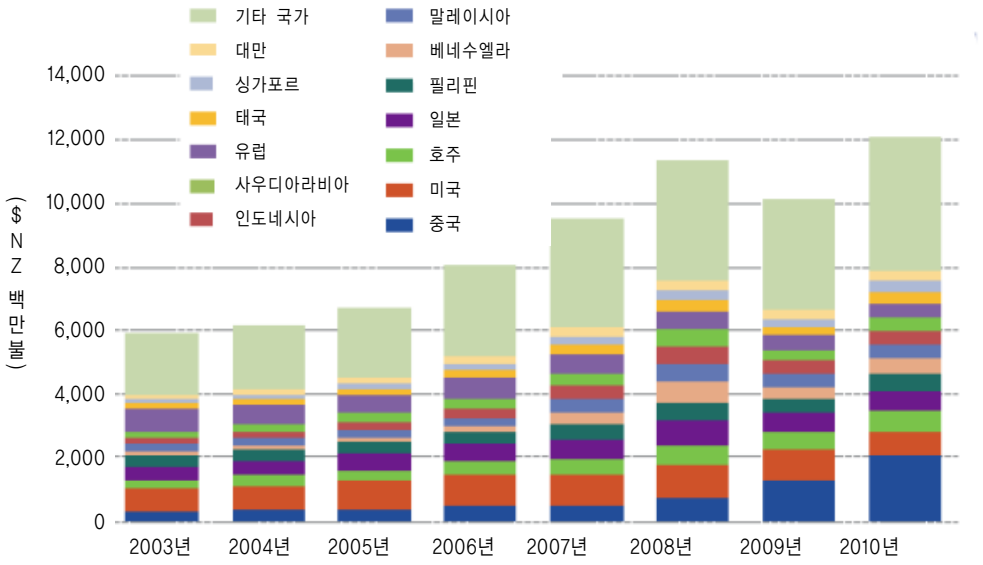
낙농 수출을 이끌고 있는 회사는 뉴질랜드 최대의 협동조합으로 2001년 설립된 '폰테라 (Fonterra)'이다. 폰테라는 전체 12,000여 낙농가 중 95%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00% 낙농 농가 소유의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이다. 낙농 생산 및 수출과 관련하여 낙농협회(Dairy NZ)와 폰테라의 마케팅 기능이 중요하다. 폰테라는 국제 시세에 따라 농민들에게 우유 고형분 1kg당 일정액을 지불하는데 2010년에는 1kg당 7.90 NZ달러를 지불하였다.

그림 7 뉴질랜드 주요 낙농 수출 대상국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및 농림부, 2010.

그림 8 2003년 이후 뉴질랜드 낙농 수출 변화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및 농림부, 2010.

2.3.2. 과수 산업

뉴질랜드 주요 원예 수출 품목 중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과일인 사과와 키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의 사과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3% 정도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세계 수출 경쟁력측면에서 뉴질랜드 순위가 2위에서 현재 3위로 한 단계 낮아졌으나 여전히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과 산업은 1999년 구조 조정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해 오던 단일 마케팅 보드 구조였던 사과, 배 마케팅보드(ENZA)를 해체하였다. 이후 뉴질랜드 사과·배 협회(Pipfruit NZ)[3]가 마케팅 보드의 일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조조정 이후 1,500여 농가였던 사과, 배 과수 농가 수는 10여 년간 꾸준히 줄어들어 2010년에는 431개 과수농가로 줄어들었고 95개 수출업자가 사과 수출에 참여하고 있다. <표 5 참조>

과수농가의 수가 줄어들고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품종의 개량과 생산성 향상,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사과 수출물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표 5>는 2000년대

3) 뉴질랜드 사과·배 협회 (Pipfruit NZ)는 생산자들이 100% 소유한 민간단체로서 생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생산자들에게 기술, 정책, 시장 정보 제공, 과수종합안전생산 (IFP)에 관한 관리규정 수립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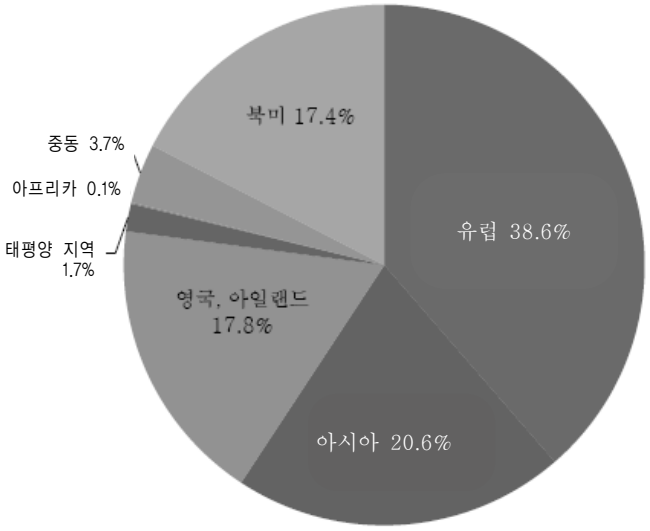
중반 이후 뉴질랜드 사과 생산 및 수출과 관련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뉴질랜드 사과 산업 및 수출 변화(2004년 이후)

연도 (12월31일기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물량 (천톤)	358	315	265	290	261	303	
종합안전생산 비율 (IFP) %	95%	95%	94%	94%	94%	92%	
유기인증 비율%	5%	5%	6%	6%	6%	8%	
수출단가 (FOB)*	$15.55	$12.88	$20.02	$19.06	$24.44	$20.52	
재배면적 (ha)	12,585	10,764	8,996	8,766	8,538	8,484	8,630
수출 재배농가 수	917	920	680	520	509	454	431
수출 선과장 수	102	85	73	68	70	65	
수출업자 수			96	90	93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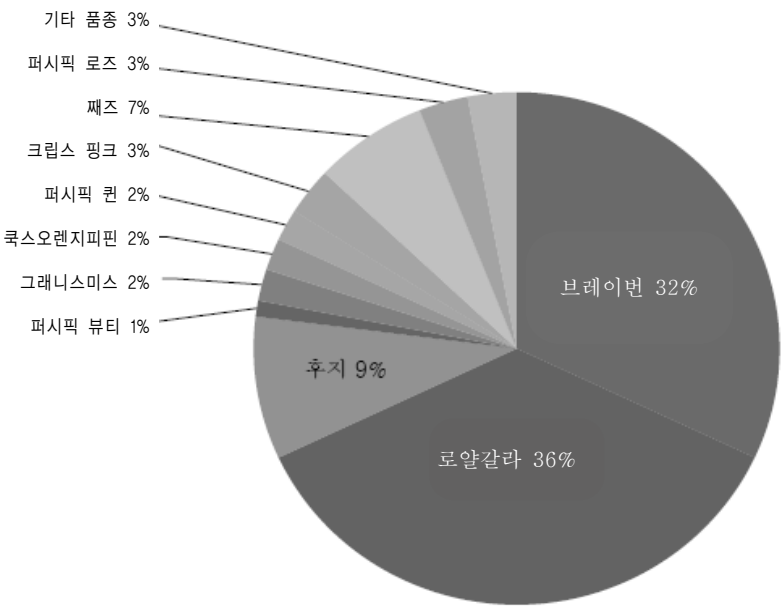
* NZ$/18kg 상자; IFP; Integrated Fruit Production (과수 종합 안전생산)
자료: 뉴질랜드 사과배 협회

그림 9 뉴질랜드 주요 사과 수출 대상국별 비율



자료: 뉴질랜드 사과배 협회, 2010.

그림 10 뉴질랜드 주요 사과 수출 품종



자료: 뉴질랜드 사과배 협회, 2010.

<그림 9>에서 보듯이 사과 수출은 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지역 국가들로 50%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중동 및 아시아 지역으로 약 24%, 그리고 북미지역으로 약 17% 정도가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출 품종으로는 로열 갈라(36%)와 브레이번(32%)이며 <그림 10> 2004년 이후 이들 품종들의 18kg 한상자당 평균 수출 단가 (FOB 기준)는 20.52NZ 달러 수준이다. 한편 최고의 수출 단가를 기록하고 있는 품종군은 Pacific 시리즈로 이 중 Pacific Queen의 경우는 18kg 한상자당 평균 수출 단가 (FOB 기준)는 35.19 NZ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사과 수출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무농약 잔류성, 저비용 지속 생산 등 까다로운 수출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과수원 생산관리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을 하는 동시에 생산농가의 이익 증대 등이 시급하고 중요한 산업 과제들이다.

키위 과일 수출 현황 및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산업관련 변화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키위과일 재배 농가 수는 약 2,700여 농가로 큰 변화가 없으나 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재배면적은 12,525ha에 이르고 있다. 한 상자당 3.6kg 단위로 2008년 이후로는 매년 1억 상자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며 약 10억 NZ달러 (2010년, 998백만 NZ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키위과일 수출을 통한 농가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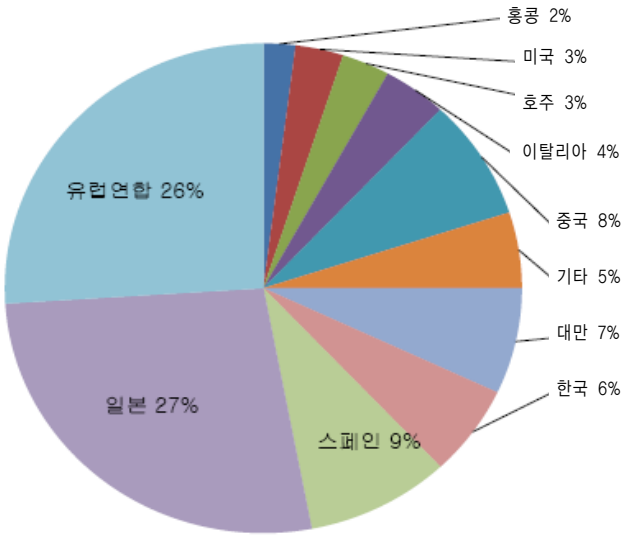
은 환율과 수급 동향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2010년에는 단위 ha당 평균 39,142 NZ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6 뉴질랜드 키위과일 산업 및 수출 변화(2004년 이후)

연도 (3월31일기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물량 (백만 상자)*	66.1	85.8	87.8	90.0	102.0	109.4	107.0
실제 수출 판매된 상자수 (백만상자)	64.6	79.7	82.3	80.1	92.4	99.9	98.5
수확량 (상자/ha)	6,247	7,847	7,655	7,514	8,371	8,866	8,546
재배면적 (ha)	10,580	10,934	11,464	11,967	12,186	12,337	12,525
재배농가 수	2,703	2,760	2,748	2,754	2,727	2,710	2,711
선과장 수	98	88	83	80	75	71	71
저온 저장업자 수	86	89	85	87	83	92	77
평균과수원수입 (NZ달러)*	38,488	34,738	28,687	32,566	28,169	35,655	39,142

* 1상자당 3.6kg; 평균 과수원수입 (NZ달러)의 경우 과수 농가의 생산비용 및 세금 등을 제하기 전의 농가 수입을 말함.
자료: 제스프리 그룹, 2010.

그림 11 뉴질랜드 키위과일 주요 수출 대상국 (2010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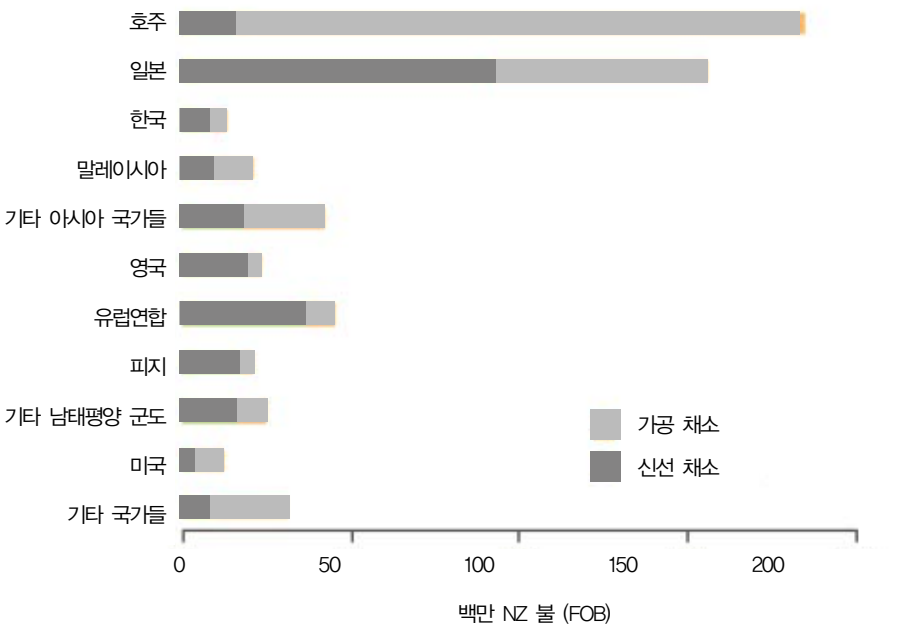
2010년도 뉴질랜드 키위과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그림 11>에 나타나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26%)과 일본(27%)이 주요 수출대상국이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6%정도

이다. 특히, 1997년 이후 한국 제주도 농가들과의 계약 재배로 골드 키위가 생산되고 있어 브랜드 관리를 위한 연중 공급체제의 좋은 예가 되고 있으며 한국 농가로부터 생산된 키위 과일의 제3국으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뉴질랜드 키위과일 수출은 전체 2,700여 농가 중 약 90%에 달하는 2,200여 키위재배 농가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단일 수출 마케팅 회사인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9년 제정된 키위 과일 산업 법령에 의해 현재 호주를 제외한 키위 수출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단일 수출 창구인 제스프리사를 통해야 한다. 제스프리사는 키위 과일 수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매년 8천만 NZ달러를 제품 홍보와 브랜드 마케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모양, 맛, 건강 기능성이 추가된 신품종 개발 등 혁신적인 키위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매년 1천만 NZ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최근 주요 키위 재배 지역인 베이오브 플랜티 지역의 키위궤양병균(PSA) 박테리아 감염으로 일부 키위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등 위기를 맞고 있으나 제스프리사와 키위재배농가의 협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이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그림 12 뉴질랜드 채소 주요 수출 대상국 (2010년)

단위: 백만 NZ달러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1.

2.3.3. 채소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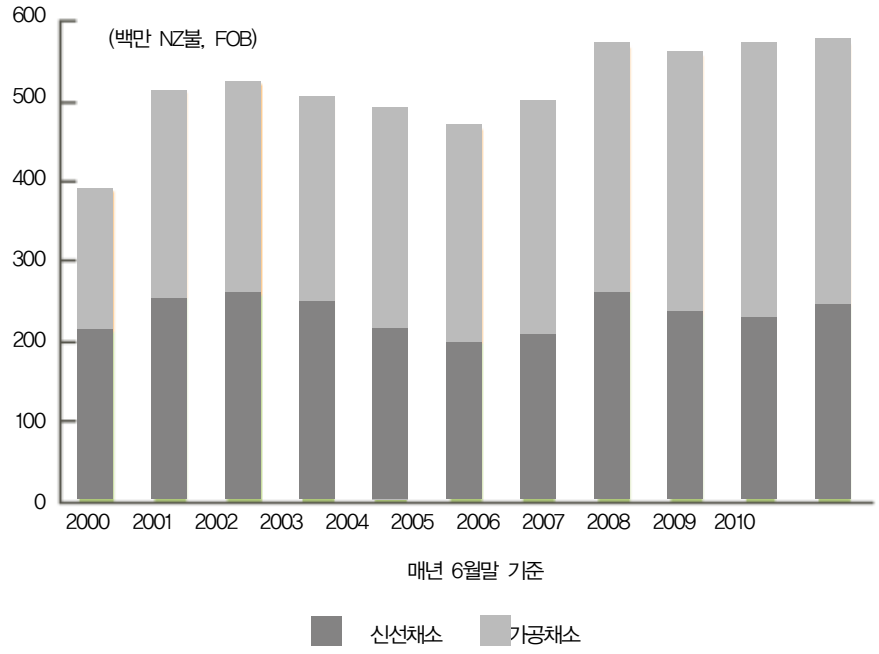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채소 수출은 호주 (184.2백만 NZ달러, 2010년)와 일본 (155.3 백만 NZ달러, 2010년)이 약 60%를 차지한다. <그림 12 참조>

과거에는 가공채소의 수출 비중이 컸으나 2000년대 들어서 부터는 신선채소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3 참조>

2010년 전체 채소 수출액 규모는 총 567.8백만 NZ달러이며 이중 신선채소가 247.7백만 NZ달러, 가공채소가 320.1 백만 NZ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신선채소 수출의 경우 양파 113.4백만 NZ달러, 단호박 53.2백만 NZ달러, 파프리카 33.8백만 NZ달러가 전체 신선채소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공 채소의 경우 냉동상태의 제품 수출이 주를 이루며 3개 주요 가공업체가 내수 및 수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 채소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수는 2010년 현재 3,400여 농가로 54,660ha면적에 채소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채소 재배는 뉴질랜드 남, 북섬에 고르게 분포하나 지역별로 1~2개 특화된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3 2000년대 이후 뉴질랜드 신선 및 가공채소 수출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1.

2.4. 민간 주도의 뉴질랜드 원예 수출

앞서 뉴질랜드의 주요 원예 수출 품목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수출 중심의 뉴질랜드 원예 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산업군 안의 민간단체 (생산자 조직)가 시장 개척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1980년대 초반 이루어지기 시작한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의 영향으로 뉴질랜드 농식품 산업 분야에 크고 작은 생산자 그룹들이 품목별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원예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대 중반의 '뉴질랜드 원예협회' (Horticulture NZ)의 탄생을 들 수 있다. 2005년도에 채소 생산자를 대표하는 채소 연합 (Vegetable Federation (VegFed)) 단체와 과수 생산자 대표 조직 (Fruit Growers Federation)이 합병하여 뉴질랜드 원예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뉴질랜드 원예 협회 (Horticulture NZ)'가 설립되었다. 뉴질랜드 원예 협회는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전체 6,000여 과일 및 채소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생산자들을 대표하여 원예 산업 전략 수립, 품목별 생산자 조직 지원 (현재 22개 조직이 존재함), 농산물 검역 및 방역, 수출정책, 기술교육, 식품안전규제, 환경문제 등에 관한 중요한 정부의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생산자 조직의 대외 계약체결, 산업 증진 및 잡지 발행 (The Orchardist, Grower)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 협회는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22개 생산자 조직에서 걷어 들인 자조금으로 운영 되고 있다. 본 협회의 8명의 대표 이사들은 전체 생산자들이 참여한 투표에서 선출되며 이들 중 한 사람이 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 본 협회의 사무실은 뉴질랜드 수도인 웰링톤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주 직원 약 2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뉴질랜드 원예협회 산하 22개 생산자 조직의 산업 부흥 및 수출을 위한 두 개의 중요한 법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원예협회와 품목별 산하 조직의 운영을 위해 1990년에 개정된 상품 자조금 법안 (Commodity Levy Act 1990)이며 다른 하나는 원예 수출법안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 1987)[4]이다. 키위 산업은 1999년에 제정한 별도의 법안에 따라 수출을 하고 있으며 호주로의 키위과일 수출 및 타 품목들의 수출은 원예수출법안에 동의한 적용대상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예 산업 22개 생산자 조직 품목 중 현재 아보카도, 단호박, 핵과류, 키위과일 (호주수출 대상 적용), 배 (나시), 단감, 밤, 블랙커런트, 보이젠베리, 타마릴로, 송로버섯 등 11개 그룹이

4) 자조금법과 원예수출법안에 대해서는 현 농림수산식품부 이정삼 서기관의 저서 "뉴질랜드 농업세상 둘러보기"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원예 수출 법안에 따라 수출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예 수출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수출 품목의 수출 전략 (Export Marketing Strategy, EMS) 수립이며 이에 따라 생산자 및 수출업자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 규정, 농약 잔류성 등 식품안전 관리규정, 산업 구조와 기능 안내, 연구 개발비 조성, 국내 산업 정보수집 관련 규정 등이 기재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법안에 따르는 모든 참가자들은 이들이 동의하고 승인한 프로그램에 따라 수출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는 품목별 생산자 그룹이 잘 조직되어 있고 정부는 생산자들이 동의하고 승인한 법령을 제정하여 이들의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정삼. 2009. 뉴질랜드 농업세상 둘러보기. 도서출판 자연과 사람.

박현태, Allen, N.Rae, 2004. 뉴질랜드의 원예 산업 동향과 전망. 연구자료 D 1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Allen, N.Rae, 2005. 뉴질랜드의 키위산업 동향과 전망. 연구자료 D 2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lant & Food Research. 2011. FreshFacts 2010.

뉴질랜드 원예협회 www.hortnz.co.nz

뉴질랜드 사과·배 협회 www.pipfruitnz.co.nz

뉴질랜드 원예수출공사 www.hea.co.nz

뉴질랜드 농림부 www.maf.govt.nz

호주 원예협회 www.horticulture.com.au

호주 원예수출협회 www.ahea.com.au

호주 연방 농림성 통계국 www.daff.gov.au/abares

호주연방정부 농림성 www.daff.gov.au